

법무부, 심리치료과 신설 10년... 교정 심리치료 새 도약 모색

-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 개최 -

법무부는 '26. 8. 22.(토) 오전 9시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 502호에서 한국심리학회 제80차 연차학술대회 공식 세션으로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심포지엄은 '재범방지의 길, 심리학에서 찾다: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을 맞아 교정 심리치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발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교정공무원과 한국심리학회 회원, 심리치료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는 2016년 심리치료과 신설 이후 치료프로그램 확대와 심리치료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정 심리치료의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심리치료와 소년수형자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 새로운 치료 방식을 적극 도입하며 교정 심리치료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10년간 교정 심리치료의 주요 성과와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교정 심리치료의 국제 동향과 국내 교정시설의 치료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출소 이후에도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교정 현장의 경험과 학계의 전문적 견해를 종합하여 제시된 발전 방향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이번 특별심포지엄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교정 심리치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정 심리치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료체계를 구축하여 재범방지와 국민 안전에 더욱 기여해 나겠다”고 밝혔다.

[붙임]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 개요 1부. 끝.

담당 부서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책임자	과 장 백학훈(代) (02-2110-3891)
		담당자	교정관 한승구 (02-2110-3892)



□ 행사 개요

- (배경)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
- (행사명)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
 - ※ 제80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26. 8. 20.~22.) 공식 세션으로 운영
- (주제) 재범방지의 길, 심리학에서 찾다: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와 미래
- (일시) 2026. 8. 22.(토) 09:00~11:00
- (장소)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 502호(서울 강서구)
- (참석)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한국심리학회 회원, 외부 전문가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08:40~09:00(20')	등록 및 접수	
09:00~09:05(5')	심포지엄 안내	사회자: 황하나 교위(심리치료과)
09:05~09:10(5')	교정본부장 인사말	
09:10~09:15(5')	한국심리학회장 축하	
09:15~09:30(15')	발표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	김길용 교위(심리치료과)
09:30~10:00(30')	발표 변화하는 환경, 이어지는 치료: 교정 심리치료의 미래지향적 전환	송원영 교수(건양대학교)
10:00~11:00(6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교정현장에서 바라본 심리치료의 현재와 미래 - 전문인력 확대 등 학계와의 연계 방안 - 심리치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좌장: 이지원 교감(심리치료과) 조은혜 간호주사(진주교도소) 신기숙 초빙교수(경기대) 박은영 교수(대구가톨릭대) 송원영 교수(건양대학교)

※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체험 부스 운영